

# 해수부, 호르무즈 통항 재개 대비 보험 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

-보험 관련 선사 애로사항 점검, 다음주 초 금융위·보험업계 간담회 개최 예정-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4월 10일(금) 오후 4시에 중동 전쟁의 2주간 일시 휴전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비해, 우리 선사들의 전쟁 보험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전 황종우 장관 주재로 진행된 호르무즈 해협 내측 체류 선박(26척)의 통항 준비 상황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열렸다.

회의에서는 선사와 선박별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 등 전쟁보험 가입 현황을 재점검하고, 보험요율 등 해상보험 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였다.

선사들은 통항 안전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보험사와 보험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며, 통항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보험요율과 신속한 가입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.

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선사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다음 주 초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국내 재보험사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.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한 재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.”라며, “선사들이 통항 준비 과정에서 마주하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원배 (051-773-5710)
		담당자	서기관	김지환 (051-773-5720)
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장	이동엽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형 (02-2100-2945)